



필리핀

I. 일반개황

면적	30만 Km ²	G D P	804억 달러(2003년)
인구	7,860만 명(2002년)	1 인 당 GDP	951 달러(2003년)
정치체제	대통령 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달러당)	54.20 (2003년 말)

-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형태를 취하고 있음.
- 동, 니켈, 입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8천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임.
- 지역간 및 계층간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사회의 불안정성이 잠재되어 있으며, 상품수출의 과중한 대미 수출의존 등으로 수출 구조가 취약함. 2001년 1월 아로요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방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는 기존 경제구조의 전면 개편, 빈민계층의 소득향상을 겨냥한 경제사회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동향

- 경제성장률: 2003년에는 수출둔화 및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76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민간소비 확대에 힘입어 4.5%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도 세계경기 호전에 따른 수출 증가로 4.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에 따른 긴축재정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 회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e	2004 ^f
경 제 성 장 륜		4.0	3.4	4.4	4.5	4.5
재 정 수 지 / G D P		-4.1	-4.0	-5.2	-4.6	-4.2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륜		4.4	6.1	2.9	3.1	4.3

자료: EIU, *Country Report*.

- 물가: 올해 3월과 4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2%를 기록하였음. 이는 폐소화 약세와 고유가로 인한 국내 운송비 증가 등이 원인이며 2004년과 2005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와 4.7%로 전망됨.
- 재정수지: 필리핀 정부는 적극적인 긴축 재정과 세수 확대를 통해 2003년에는 2,000억 폐소(GDP의 4.6%)의 재정적자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금년 재정적자는 GDP대비 4.2%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이는 징세효율화와 공기업 매각 등 경제개혁 프로그램의 성과에 달려 있으나, 관료부패, 세수기반 부족, 부적절한 징수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여 단기기간에 재정균형을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 경제구조

- 서비스업이 5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22.9%), 농수산업(14.5%)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자제품에 의존하는 수출구조: 전자제품이 전체 수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70%가 반도체 수출로 전자제품 특히 반도체 수출비중이 높아 반도체의 국제시세에 따라 수출실적이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대미 수출의존도도 30%에 이르는 등 무역구조의 취약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수입에서는 중간 원자재가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전자 장비가 24%, 전자부품이 18%를 차지하고 있음.

3. 경제정책

- 재정적자 감소 정책: 재임에 성공한 아로요 대통령은 상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2003년도 GDP 대비 4.6%를 기록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2003년도 필리핀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78%(1999년 59%)에 달하

고 있어 재정적자 감소가 시급한 상황임.

- 환율 안정 정책: 필리핀 페소화의 달러당 환율은 1994년 24.42에서 2000년 50.00, 2003년에는 55.57을 기록하였으며 현재(2004년 6월 21일)도 달러당 56.21을 기록하고 있음. 필리핀 정부는 대선 종료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어 환율도 달러당 54.00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당분간 페소화 약세는 유지될 전망이다.

4. 대외거래 동향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e	2004f
경 상 수 지		6,258	1,323	4,197	3,349	1,800
경 상 수 지 / G D P		8.2	1.8	5.4	4.2	2.2
상 품 수 지		3,814	-743	408	-1,254	-1,600
수 출		37,295	31,243	34,383	34,841	38,100
수 입		33,481	31,986	33,975	36,095	39,700
외 환 보 유 고		12,931	13,305	13,007	13,326	..
총 외 채 잔 액		57,429	47,822	59,342	58,000	62,700
총 외 채 잔 액 / G N P		72.6	63.3	71.4	72.0	74.8
D.	S. R.	13.8	21.7	20.2	23.5	..

자료: EIU.

- 경상수지 흑자는 감소세: 2003년도 수출은 전자제품, 의류 등의 수출부진으로 증가세가 미미하였으며, 수입은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증가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상품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음. 이에 따라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금년에는 20억 달러선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 환율은 약세 유지 전망: 필리핀의 페소화는 해외근로자로부터의 송금 증가, 재정적자 완화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7월 군소장파 장교들에 의한 쿠데타 발생에 따른 정국 불안과 대선 등의 영향으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는 달러당 56페소 선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은 지연: 비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에 따른 손실 증가와 관련차입이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임. 2001년 6월의 필리핀 전력산업 개혁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국영전력공사(Napocor)의 발전소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

도 및 입찰참여 부진으로 지연되고 있음. 정부는 금년에 Navotas 발전소를 포함한 10여 개의 발전설비 매각을 계획하고 있으나, 기업들의 입찰참여 부진으로 인해 진행이 더딘 상황임.

Ⅲ. 정치·사회 동향

1. 아로요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

- 2001년 1월 20일, 에스트라다 퇴진 후 당시 부통령이던 아로요가 군부의 지지와 '피플 파워'의 무혈혁명을 통해 대통령직을 승계하였으며, 동년 5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 연합이 과반수를 차지해 정국안정을 이룩하였음.
- 지난 5월 10일 실시된 대선에서 현 아로요 대통령이 약 100만 표의 근소한 차이로 재선에 성공하여 앞으로 6년간 재임하게 됨. 당초 지지율이 더 높았던 Poe후보의 정치경험 부재로 결국 유권자들이 아로요를 선택한 것으로 평가되나 국정운영에 대한 부담은 상당함.
- 현 아로요 정권은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패척결 및 경제성장 등에 있어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아로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이의 개선에 따라 국민지지도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2. 쿠데타 발생 및 내전 가능성 여전

- 지난해 7월 군내 소장파 장교들이 군부패 척결과 대통령 퇴임을 요구하며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함. 쿠데타 배후로 에스트라다 전대통령이 지목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조사 중이며, 향후 쿠데타 재발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음.
-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MILF)과는 1996년 9월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과격 회교단체인 Abu Sayyaf의 활동지원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2001년 초부터 민다나오섬 자치문제와 관련하여 소요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2003년 정부는 MILF와 휴전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4월부터 평화협상이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재하에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3. 사회적 빈부 격차 확대

- 빈곤계층이 전체의 3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며, 소득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구조임. 또한 경제난과 정세불안으로 현 아로요 정권에 대한 불신도가 높은 상태임.
- 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 정부와의 공조로 이슬람세력 소탕을 위한 미군 주둔에 아로요 정부가 한 때 협조하였으며, 작년에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인도적 사절단을 파견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군사·경제적인 지원을 약속받는 등 미국과의 관계는 긴밀해지고 있으나 자국내의 반미 감정은 여전함.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1. 국제신인도 및 ECA 지원 태도

- Moody's는 2004년 1월에 필리핀의 세수부진으로 인한 재정균형 성과 미비를 이유로 장기외화등급을 Ba2(부정적 전망)로 하향조정하였고 S&P는 2003년 4월 BB+에서 BB로 하향조정하였음.
- 주요 ECA들은 필리핀에 대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음.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I.C.R.G: 71/140 (2003.10.) → 75/140 (2004.4.)
- Euromoney: 65/185 (2003.9.) → 70/185 (2004.3.)
- I.I.: 65/172 (2003.9.) → 65/172 (2004.3.)
- OECD: 5등급 (2003.4.) → 5등급 (2004.4.)

3.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 1998년 3월 IMF로부터 13억 7,100만 달러의 대기성차관 지원승인에 따라 2000년 8월 말까지 9억 3,600만 달러를 지원 받았으나, 재정수지 개선 및 경제구조 개혁 등의 IMF 지원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IMF의 추가적인 차관지원이 보류된 상태임.

-
- 필리핀 정부는 중장기개발계획(Medium-term Philippines Development Program: MTPDP)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2003~05년 중 지원프로그램(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통해 경제성장 및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여 총 1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MTPDP의 세부목표는 재정균형 달성,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 기업규제 개혁, 통신 및 전력 부문의 인프라 확충 등임.
 - ADB는 경제 성장, 사회보장 서비스수준 개선, 빈곤 감축 및 사회 개발에 역점을 두고 2001~03년 중 16개 프로젝트에 9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에너지, 농업·천연자원, 사회 인프라, 교통·통신 사업이 지원총액의 84.5%를 차지하고 있음.
 - 대외채무에 대한 동국의 상황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총 외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V. 종합의견

- 필리핀은 수출둔화 및 대선 등의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에 힘입은 민간소비 확대로 2003년 4.5%의 양호한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04년에도 수출 증가로 4.5%의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긴축재정으로 투자심리 회복은 힘들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5월 대선에서 아로요의 재집권을 통해 일단 대외적인 불안감은 해소되었으나 취약한 지지기반과 쿠데타 발생 가능성, 빈부격차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음.
- GDP 대비 국가채무가 증가 추세이기는 하나, 총 외채 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외채 비중은 비교적 낮은 편이어서 외채상환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도 현 철】